



발간자료

• **엔터 Spot:** 6월 음반은 YoY+20%, 4사 합산(+5.6%), HYBE(-31%), SM(+52%), JYP(-87%), YG(+1,334%). 보넥도/라이즈/트레저가 100만장 이상 판매, 하투하 62만장과 코르티스 44만장이 추가되며 성장세 지속. 음원은 4사 합산 월간 리스너 수 3.0억명(YoY+38%, MoM+4.4%; 이하 MoM). HYBE(+8.9%), SM(+2.8%), JYP 4,202(-4.4%), YG 3,855(-1.7%). 하이브 걸그룹 콜라보 디싱 성과 고무적, 캣츠아이 효과로 르세라핌/아일릿의 블랙핑크 리스너 수 역전. 에스파는 SM IP 중 해외 차트 기준 최고 성적

(엔터 임도영)

• **JYP Ent._BUY/8만원:** OP 컨센 소폭 하회 전망. 1) 일부 IP 흥행 미스 + 디싱 발매 증가로 앨범 원가율 상승, 2) 일부 매출 지연(스키즈 팬미팅 온라인 MD + 트와이스 북미 공연 초과수익). 스키즈 서구권 투어 횟수 증가 가능성은 높다 판단. 27년까지는 스키즈의 투어 및 MD 반영으로 성장 담보될 전망. 다만 최근 엔믹스 성장세 다소 주춤, 킥플립도 타팀 대비 아쉬운 모습 지속. 스키즈와 남미 페스티벌에 참여할 NEXZ의 성과 확인 필요

(엔터 임도영)

• **포스코인더내셔널 BUY/8.2만원:** 적정주가 10.1만원에서 8.2만원으로 하향. 적정 PBR 2배로 하향 조정. 2Q26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 팜 농장 인수 이후 낮아졌던 이익률이 점차 정상화되는 중. 또한 미얀마 가스전 보상매출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성수기. 철강 이외에 사업 전반 모두 호조. 포스코홀딩스가 동사 지분을 70%에서 50%로 축소 계획. 단기 오버행 리스크 있으나 유통주식수 증가로 동사 거래 유동성 제고 가능

(철강/비철금속 이정우)

• **현대제철 BUY/4.6만원:** 적정주가 5.7만원에서 4.6만원으로 하향. 적정 PBR 0.34배로 하향 조정. 상반기 내 발표 예정이었던 철근 구조조정 기대감 희석. 유통가격 상승세도 둔화. 2Q26 실적 컨센서스 하회 예상하나 연간 추정치는 유지. 컨센 하회 이유는 원재료비 부담 증가와 고환율 환경으로 가격 상승 효과 하반기로 미뤄짐. 하반기 원재료비 하락과 판가 추가 상승 예상으로 이익 개선 기대

(철강/비철금속 이정우)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